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과 의미

우경식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 한국동굴연구소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재청은 2006년 2월에 유네스코에 “제주도 화산지형과 용암동굴”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신청하였다. 현재 이 심사를 담당하였던 국제보전연맹(IUCN)에서는 제주도지역에 대한 등재 권고를 결정함으로써, 제주도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이번의 등재는 국내 지질학에 미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제주도는 지질학적, 동굴학적인 가치가 뛰어난 120여개의 용암동굴과 다양한 화산지형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순상화산체인 한라산과 그 주위에 약 380개의 기생화산이 제주도를 대표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지역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인 한라산과 수성분출로 형성되어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성산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으로부터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 생성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는 벵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치물동굴이 있다. 제주도의 용암동굴과 화산지형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특징이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 1) 제주도에 나타나는 화산암은 1백만 년에서 수천 년 전까지 일어났던 화산활동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은 주변 국가에서 일어났던 화산활동과 차별화된다. 또한 판구조론적으로 수렴경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열점에 의해 화산체가 형성된 것도 전세계적으로 매우 귀한 현상이다.
- 2) 해뜨는 오름으로도 불리는 성산일출봉은 약 오천 년 전 얇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옹회구이다. 성산일출봉이 형성된 후 수천 년 동안 이 화산체의 측벽을 침식하여 일출봉의 형성과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구조들이 잘 노출되어 있다.
- 3) 제주도에 있는 규모가 매우 크고 훌륭한 경관을 가진 용암동굴이 있다. 특히 만장굴과 김녕굴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규모가 큰 동굴에 속한다. 벵딤굴은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통로를 가진 용암동굴 중의 하나이다.
- 4) 제주도 용암동굴의 또 다른 자연유산적 가치는 저지대에서 발견되는 동굴 내의 동굴생성물이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용천동굴과 당치물동굴 내에는 탄산칼슘 성분을 가진 동굴생성물이 발견되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귀한 것이며, 뛰어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